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 행동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설날 예배

<예배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 목도	다함께
· 성시	시편 1편 1~3절 인도자
· 찬송	28장(통 28장) 다함께
· 기도(또는 사도신경)	가족 중(다함께)
· 성경봉독	시편 85편 1~13절 인도자
· 메시지	“의와 화평이 입맞출 때” 인도자
· 찬송	301장(통 460장) 다함께
· 주기도	다함께

의와 화평이 입맞출 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시인은 주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1-3) 현재를 반성하면서(4-7) 새로운 내일을 위해 기도하고(8-9)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10-13).

1.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좌절감과 낙심을 이기는 출발점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1-3).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확실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확실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2. 현재를 반성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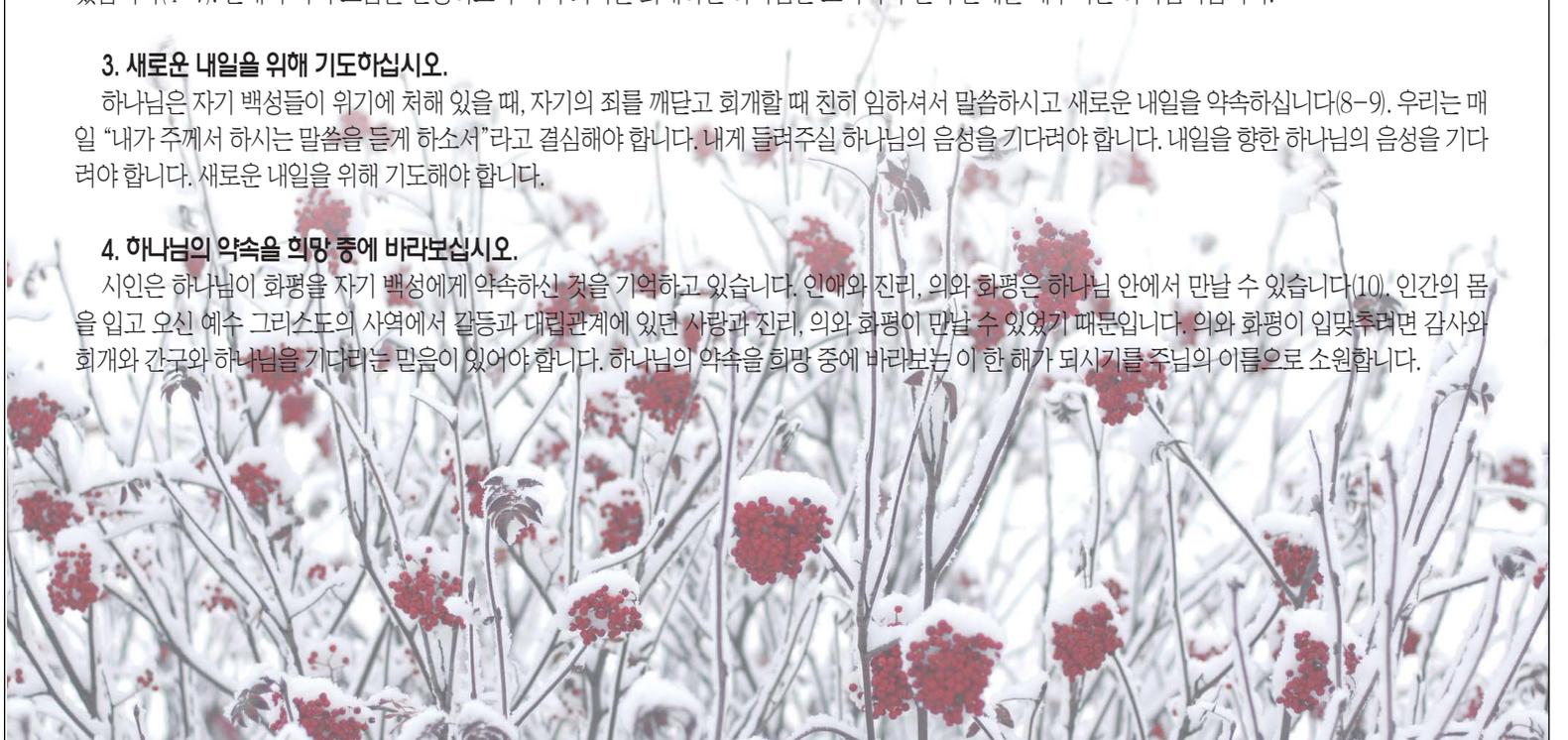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현재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현재의 위기와 시련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4-7). 현재의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 새로운 내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친히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십니다(8-9). 우리는 매일 “내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내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4.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 중에 바라보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이 화평을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은 하나님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1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던 사랑과 진리, 의와 화평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와 화평이 입맞추려면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 중에 바라보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2013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

오리엔테이션: 오후 4시 본당 / 수여식: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하영수 장로)는 2013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로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46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브리시길라 장학생> 허승일 박다형 (2명)
- <송암장학생> 김재은 박수영 김현지 김수경 이다솜 김민태 정상준 이예원 최규리 박연정 박유란 최서원 이한나 김휘 나인영 김혜진 이성화 김연진 신미령 박하나 이윤재 박서정 안시내 임하나 권소현 조인주 (26명)
- <디아스포라부> 홍정원 권영숙 홍지아 김혜경 유수정 이영화 박준희(7명)
- <고등부> 김세찬 (1명)
- <교역자, 선교사 자녀> 서윤영 정휘준 이준행 김예나 정에스터 김하은 조라빈 (7명)
- <호산나장예인전문대학> 최미리 문병훈 노다은 (3명)

선교사 재계약과 추가파송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당회는 지난 20일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에 힘쓰고 있는 서울교회 선교사 6명의 파송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동아시아 파송 선교사의 청원에 따라 현지에서 선교활동을 펴고 있는 현지 사역자 10명을 신규 파송키로 하였으며, 캐나다인 미미 선교사를 국내 거주 베트남 여성들을 위한 선교 사역자로, 아프리카 김영섭 목사를 오는 7월 당회 면접을 거쳐 3개월 동

사 목회를 마친 후 11월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키로 하였다. 이로써 서울교회는 모두 7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 2013년에는 우리 교회의 3대 비전 중 하나인 '선교사 100명 파송'을 속히 달성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모든 성도들이 매주 25개 선교사도고팀에 동참하여 기도하므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한가정 한선교사 운동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선교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다락방보고서 서면으로 제출 가능

올해부터는 다락방모임 보고를 할 때 기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고하는 방식과 함께 온라인 접속이 불편한 다락방의 경우 서면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

다락방장은 모임 후 사무국에 비치된 서면보고서 양식에 다락방 모임 상황을 작성하여 해당 교구 목사나 교회 2층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보고서 접수함에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다락방 모임 보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홈페이지 첫 화면 중간에 [다락방보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새로 바뀐 양식으로 보고가 가능하다.

2월 학습세례문답 안내

2월 학습세례문답이 오늘 오후 2시 602호에서 실시된다. 해당자들은 모두 참석하기 바란다.

- 공 고 -

서울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기도 모임 등은 소수가 잠시 모이는 모임(주중 모임 포함)이라 할지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회 각종의 호수와 사용소요 시간, 사용 목적을 소정의 양식에 정확하게 기입하여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만일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방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식은 사무국에 비치 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만민에게 전도

선교여행을 준비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서울교회는 온 성도들의 기도와 선교의 사명에 책임 있는 교회로 세계선교를 향도해 가고 있습니다.

오랜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화의 깃발을 드높이고 있는 동아시아국에 드디어 우리 교회 성도님의 목적 현금 후원을 받은 현지 예배당이 완공되어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교회는 2005년 11월 27일부터 현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현재 7명의 선교사를 사역하게 함으로써 주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한 결과 첫 열매를 맺게 되었으며, 성도님들의 계속되는 뜨거운 기도와 후원으로 마침내 2013년 2월 14일 현지 교회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기 위해 박노철 목사님과 장로, 집사 일행 5명이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동아시아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현지 선교사들의 선교사역 현장을 격려하고, 우물파기 현장과, 현지 신학생 졸업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선교여행 일정을 은혜롭게 마치고 무사히 귀국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겁고 열렬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위원회>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76]

(문 75) 시스라는 정확히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사기 5:24-27 말씀은 사사기 4:21과 상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행한 야엘이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사 4:21에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자기 집 손님으로 와서 잠든 가나안 야빈왕의 장군 시스라를 살해한 기사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박의 자손 중 겐사람 호벨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장인 이름은 여러가지로 나타났지만 실은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엘(출 2:18)은 모세의 처조부고 이드로(출 3:1)는 그의 존호(尊號)였으며 호박(사 4:11)은 그의 본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헤벨은 모세의 처족(妻族)이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를 처음엔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사 4:21에 의하면 시스라가 안심하고 잠든 사이 기습작전으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 기절하여 죽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시스라가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옆드러져 죽은 것을 바락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 5:24-27에 의하면 자기 집에 온 시스라에게 고급 음료수(우유)로 대접하고 한 손에 말뚝을 다른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기사 사이엔 아무런 충돌이 없습니다.

더 난해한 것은 야엘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것입니다. 야엘은 분명히 폭행을 한 것이요, 자기 집에 평화롭게 온 손님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살해한 죄가 있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어느 곳에서도 야엘의 행위를 책망한 부분이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 드보라는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사 5:24)

그것은 가나안 왕 야빈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립을 취하고 있던 겐사람 헤벨의 아내가 이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편에 전적으로 가담한 일은 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람이 중립을 취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 같은 모호한 입장을 회개하고 유쾌하게 하나님 편에 속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도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왕의 신하가 우상과 함께 멸망해야 할 처지에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엘이라는 약한 여인을 통해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가족찬양예배!

2013년 1월 27일(주)에 처음으로 드린 '가족 찬양 예배'는 청년부의 생동감 있는 찬양으로 시작 되었다. 마침 이 날은 청년 1, 2, 3부 헌신예배여서 그 열기가 더했다. 매달 마지막 주마다 드리게 될 '가족찬양예배'에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진 : 손동혁 집사(편집부)



엄마랑~~~ 할머니랑~~~~ 예배 드려요!



목사님 설교를 경청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나에게 하나님은 진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홍정원 성도 (디아스포라부)



이윤재 성도 (청년부)

부족한 저에게 장학생이라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여름성경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찬양팀과 임원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체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 힘들어도 꾸준히 나왔습니. 그러던 중 작년에는 임원으로 청년1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디아스포라부의 새터민 대학생 홍정원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빌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디아스포라부는 북한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새로운 삶을 찾아 한국에 오게 된 탈북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여 서명철 목사님과 집사님, 권사님들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남북 분단 60여년은 서로에 대한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임에도 서로를 이방인만큼이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온 우리에게 차별이라는 고난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이곳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복음으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오기까지는 분명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며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안겨주시심을 감사드리며 받기만 하는 저희가 아니라 드리며 보답하는 저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서울교회로 온 이후 저의 신앙생활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전과는 사뭇 다른 교회 분위기에 동화되지 못하고 공동체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고 입시를 준비할 때가 되어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때서야 교회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수능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절망감에 사로잡혔지만 여기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수능 다음날부터 학교 발표 당일까지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발표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실수가 더 많았지만 그때마다 질책보다는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전도사님과 2012년 임원들은 저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1부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 청년1부 지체들이 나의 사람들로 느껴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나에게 하나님은 진부'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장학금이라는 또 하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2013년에는 젊은이예배 안내위원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나발! (주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는 교회 청년1부 공동

비전2020운동 후원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사역



장덕집사
(비전2020운동 차장)

우리 교회는 매년 1월초에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비전2020후원자의 밤'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교회의 비전 2020운동후원자들이 자매결연 교회 소속 장병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선교 보고와 격려, 그리고 친교의 시간을 갖는 행사입니다.

지난 달 20일 찬양 예배엔 기독 장병, 사관생도, 군종 목사,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등 10개 부대 98명이 철원, 포항, 동해, 파주, 태능 등 원근 각지에서 부대를 나오기에 쉽지 않은 상황에도 모든 절차와 시간을 희생하며 서울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되어 격려와 뜨거운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비전2020운동을 후원해주신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가능케 된 것입니다. 비전2020운동을 후원하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 더 많은 후원과 기도로 동참해주실 것을 기도 드리며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 20일(주) '비전2020후원자의 밤' 행사에 참석한 군 장병과 파송 군선교사들

농어촌 100교회 후원을 하며

끌어당김의 법칙



안희의 집사(11교구)

교회사의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원래부터 대단해서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평범한 신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지위가 높았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해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서울교회의 선교의 핵심은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 농어촌100교회 후원, 선교 등은 모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인간적으로

는 부족하지만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나의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기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때이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보세요. '먼저 주고, 받아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선사업가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크게 베풀고, 이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수분을 열어 엄청난 축복으로 되돌려준다. 그 몇 배로! 줄 만큼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베풀기 시작하라.' 그로써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매년 농어촌100교회후원자가 줄어든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많은 축복받으세요.

농어촌100교회운동 후원자

이윤미, 허경화, 임광호(김정미), 박미경5(노영석), 마종량, 이상섭, 윤정애, 사라전도회, 송재현(선순례), 황난옥, 박종권(김희경), 김혜연(박은영), 염혜영, 이순형, 황병석 (다음 주 계속)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김선석(문금희), 김이세(임송자), 임광호(김정미), 김요섭(이인숙4), 강석조, 황병석, 이복규(한명순) 이상섭 김애순, 민경철(주현숙), 최종희, 차인화, 김혜연(박은영), 박종권(김희경), 최양진(강윤숙), 허경화, 전은주, 진교남(김희옥), 송재현(선순례), 이순현, 염혜영, 최봉애 (다음 주 계속)

비전2020 운동 후원자

주경자, 황난옥, 마승완, 마승지, 위성남, 김소영, 이운재, 김요섭, 이인숙4, 진교숙, 황남수, 송재현, 선순례, 홍석호, 이순형, 윤정숙, 염혜영, 김이세, 임송자, 윤운식, 최양진, 허경화, 이복규, 한명순, 차영도, 정미연, 강석조, 김예환, 서상근, 윤찬오, 홍재식, 이영조, 이영자, 이민광, 이민옥, 율혜리, 최규초, 김혜연, 문수자, 임광호, 김정미, 한광훈, 장미자, 이봉선, 한명주, 한옥, 서동욱, 진현미, 이학주, 이은옥, 신봉하, 전숙향, 이상섭, 김대웅, 샬롬 권사회 (다음 주 계속)

성도 여러분, 후원 감사드립니다.
후원 봉투는 2층 새가족부실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월7일(목) 탈북난민복송반대 북한구원 위원 3천명 목사단 중국대사관앞 기도회 및 전세계 동시 참여집회에 참가한다.

■ 이갑진 장로는 2월5일(화)부터 16일(토)까지 라오스, 미얀마 기독교인제자훈련 주강사로 출국한다.

■ 수상 : 5교구 김민철 집사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선정 '이 달의 방송기자상'

■ 주간식당봉사: 베드로 선교회(2.3) 바울선교회(2.10)

■ 금주의 식사: 오영자 권사(은퇴를 감사드리며) 이지동 집사 민효영 집사 가정(퇴원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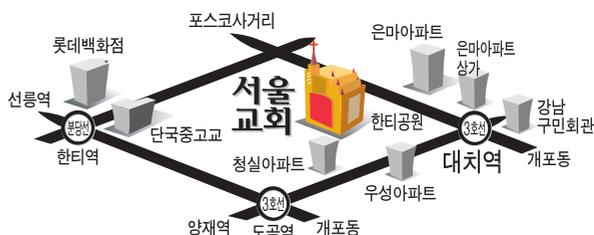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새롭게 시작된 다락방리더 훈련과 모임을 통해 사랑과 기쁨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건강한 교회를 이루도록
2. 구정을 맞이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는 가정들 되도록
3. 복음의 척박한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며 서울교회 선교 사역이 더욱 힘있게 진행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부 서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유년부	주일 오전 9시 701호	
	II 부	오전 11시 20분	초등부	주일 오전 9시 601호	
	III 부	오후 2시	중등부	주일 오전 9시 501호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고등부	주일 오전 9시	101호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젊은이 예 배	청년1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청년2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오후 7시	청년3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세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외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